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 심사위원회 회의록

### 제2차

▣일 시 : 2024년 9월 23일(수) 15시

▣장 소 : 동작구의회 제1소회의실

동 작 구 의 회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  
**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심의안건** : 2024년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 **일시** : 2024. 9. 23.(월) 15:00
- **장소** : 제1소회의실
- **참석**
  - 심사위원 : 이○○, 양○○, 가○○, 김○○, 고○○
- **내용**
  -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필요성 및 출장자 적합성 심사
  -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 출장시기 및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14시54분 개의)

◇ **위원장**

오늘 이 심사위원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환경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의정팀장님께서는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환경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출장계획서 1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환경정책 우수사례를 확인하여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주민 복지증진 등 동작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환경 분야 방문국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이며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4박 6일 일정입니다.

출장 의원은 9명이며 수행직원은 2명으로 총 11명입니다.

2쪽 주요 출장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10월 29일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말레이시아 상하수도관리 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은 말레이시아인을 위한 하수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이 소유한 말레이시아의 국영 하수도 회사입니다.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환경시스템의 우수정책 사례를 발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0월 30일에는 KLCC 공원, KL TOEWR 등 문화시설 시찰을 통해 도시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10월 31일에는 싱가포르 담수화시설인 마리나 베라지를 방문합니다.

싱가포르의 가장 큰 댐이자 저수지인 이곳은 섬나라인 싱가포르에 식수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원인 동시에 싱가포르 시민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식수원인 이곳의 수질관리 등 우수 환경정책 등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11월 1일에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방문하여 창이공항의 상업융합 복합시설인 주얼창이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원래 택시 주차장이었던 부지를 인공폭포와 숲 등을 포함해 300여 개 상점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 호텔·여가시설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한 HSBC 인공폭포는 실내 40m 규모로 지하 3~4층에 거대한 물탱크를 설치하고 빗물을 받아서 폭포 물로 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의 우수 환경정책을 직접 경험하고 벤치마킹하여 동작구 환경정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업무가 지정되어 있어 해당 업무를 더 꼼꼼히 파악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3쪽 출장경비입니다.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경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의원 공무국의출장 심의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 ◇ 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 2차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차이점과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의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환경 분야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총 8명으로 출발할 계획이었는데 의원님 3분이 추가로 함께 가기로 하셔서 총 의원님 아홉 분, 직원 2명으로 출발하는 일정입니다.

◇ 위원장

의원 3명이 추가된 부분이 변경 사항인가요?

◇ 의정팀장

맞습니다.

◇ 위원장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 교○○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된 세 분이 어느 분인가요?

◇ 의정팀장

이번에 추가되신 세 분이 행정재무위원회 신○○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신○○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이○○ 의원, 이렇게 세 분입니다.

◇ 교○○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분들이 안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 의정팀장

개별 의정활동이 있으셨는데 일정이 변동되면서 이번 해외방문출장 일정에 맞춰가실 수

있게 돼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교○○ 위원**

이분들이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 **의정팀장**

1년에 한 번 해외공무출장을 계획하고 가는 거여서 되도록이면 많은 의원님들이 다양한 정책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큰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 **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추가해서 간다고 하면 이분들이 가야 될 무언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일정상 안 간다고 했다가 일정 괜찮으니까 가도 되겠다고 하면 이분들이 꼭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인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을 가더라도, 항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반 주민들에게 공표가 되고 알려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분들이 부득이 합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납득이 된다면 별로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냥 우리도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 가지고 일반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의정팀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면요.

이번에 두 개 분야로 나누어서 가는데요. 문화·복지 분야하고 환경 분야로 나누어서 가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참가하시는 의원님들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쪽에 참가하시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저도 첨언해서 질의할게요. 지난 1차 회의 때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것을 못 갈 정도의 긴박한 사연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바뀌어서 간다, 이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떤 게 있어야지 그냥 일정이 변경돼서, 이렇게 하면 특히 이게 굉장히 민감한 행사잖아요. 충분한 설명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의정팀장

1차적으로는 각 의원님들께서 개별 의정활동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변동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연구모임이나 여러 가지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도시개발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추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 양○○ 위원

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요. 보니까 똑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로 간다고 해도 지난번에 없었던 일을 추가로 다시 가야 된다고 해서 심의위원님들을 소집시켰는데, 그거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그러면 지난번에 다 같이 가려고 했어야지 시간이 안 맞았다는 것은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내기는 보냅니다.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심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5명이 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해외를 간다고 하면 약간 골치가 아픈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계획을 짤 때 확실히 짜고 시간을 맞춰서, 시간이 없어서 맞춰서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갈 사람도 아니고 못 갈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주기는 해주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참고해서 얘기를 잘 하셔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가○○ 위원

저는 지난번 1차 회의 때 참석하지 않아서 그 경과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이 가고요. 이게 사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이고 쉽게 추진하기도 어려우니까 되도록 가실 수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게 좋겠지요.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연초부터 스케줄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추진됐을 거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에 일정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소집되거나 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의원님 두 분이 더 가겠다고 하면 세 번째 회의를 할 건 아니잖아요.

◇ 의정팀장

맞습니다.

◇ 가○○ 위원

아무튼 기본적으로 저는 중요한 행사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니까 신중하게 해서, 많은 비용도 들이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에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 **의정팀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위원**

일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잘 설득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정팀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가○○ 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차 회의 때 심의를 대부분 다 하셔서

◇ **위원장**

부위원장님이 보시고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요.

◇ **가○○ 위원**

예전에도 한번 논의했다가 진행을 못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화형**

의결이 끝났는데요. 새로 세 분이 참여하시게 돼서 재의결하는 겁니다. 내용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 **가○○ 위원**

기후 환경과 관련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도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았나요? 그랬다가

그때 진행을 못 했었죠? 그랬던 것 같은데.

◇ 의정팀장

상반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가○○ 위원

꽤 오래전 일인데요.

◇ 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에

◇ 가○○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가 의결은 했는데

◇ 위원장

지난번에 다녀오셨을 거예요.

◇ 가○○ 위원

다녀오셨나요?

◇ 위원장

이번 행사가 물론 실무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사실 두 파트로 나누어간다는 것도 물론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같이 가서서 의견 개진을 해서 일체화돼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두 파트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이쪽 파트, 이쪽 파트의 내용이 서로 교감이 잘 안되면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구태여 그것을 또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가시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또 이렇게 2차로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매끄럽지만은 않은 부분이어서 행정 쪽으로 최대한 매끄럽게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정팀장

알겠습니다.



◇ 김○○ 위원

지방자치법에 비교시찰을 나가더라도 상임위원별로 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두 파트로 가든지 세 파트로 가든지 상임위원별로 가서 서로 개진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 의정팀장

조례상에 제한 사항이 있기는 한데 한 분이 가신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사항은 없어서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꺼번에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 위원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됐으면 차라리 괜찮은 거예요. 상임위원으로 갔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상임위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적사항이 나올만한 거죠. 환경 부분에 특화된 쪽을 간다, 또 문화 쪽을 간다면 괜찮은데 개인의 사정상 섞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 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조심하겠습니다.

◇ 김○○ 위원

잘 해야죠.

◇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셔서 의견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출석으로 개의하였고 출석위원 5명 중 4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5분 산회)